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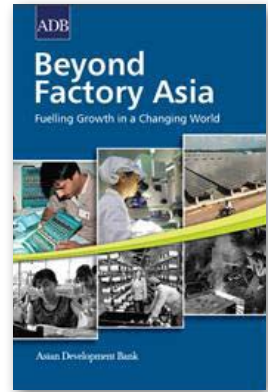
팩토리 아시아를 넘어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성장의 원동력은?

Beyond Factory Asia Fuelling Growth in a Changing World

Background Paper for the Asian Development Bank
2013 Annual Meeting Governors' Seminar
Asia Development Bank, 2013. Printed in Phillipine

송미경 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소센터



가. '팩토리 아시아',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꾼다.

팩토리 아시아(Factory Asia)는 지난 2세기 동안 아시아가 이룬 눈부신 경제발전을 한 마디로 상징하는 용어이다. 특히 세계 2차대전 이후 지난 50여년 간 아시아는 서양 선진 도시를 타겟으로 한 수출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보고서는 오늘날 아시아의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아시아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사회경제적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국가의 규모, 발전단계, 시장의 특성별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발전에 제조업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며, 환경을 배려하고 사회적으로도 형평성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만 아시아가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공동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만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강조하고 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구조되었다. '팩토리 아시아'는 아시아를 다시 세계 경제 지도에 올려놓았다.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Bindu N, Lohani, Vice President of Knowled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DB

나. 아시아 제조업의 성장과 '팩토리 아시아'의 등장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196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며 신속한 전후 회복이 가능했고, 1970년대에는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수출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된다. 1980년대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세안(ASEAN)'을 조직하여 새로운 협력적 발전 방안을 개척했다. 이후 일본의 주요 다국적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는 세계 제조품 생산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결정적인 단초는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자유화도, 이후 아시아는 복잡한 그물망 형태의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명성을 얻는다. 더불어 이 네트워크의 변방에 있던 인도까지 1990년대에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2000년대에 그 결실을 맺게 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팩토리 아시아의 정의

팩토리 아시아는 아시아의 서로 다른 경제권에 있는 공장을 이루어면서 부품과 부속품을 생산하고 조립하여 최종 생산품을 만드는 지역적 생산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네트워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일부를 구성하며, 아시아 발전에 중추적 요소였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다. ‘팩토리 아시아’의 미래와 전망

그럼 미래에도 제조업이 아시아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인 산업이다. 여러 가지 중간재를 결합하여 최종 상품을 만든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권에 미치는 스피로버 효과(Spillover Effect)-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높다. 게다가 아시아의 제조업은 글로벌 제조업에서도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1년 제조업 명목 순이익(Manufacturing Nominal Gross Value Added)관련 국가 순위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했고 한국은 6위, 인도는 10위로 상승했으며 인도네시아도 13위로 처음으로 15위권 내에 진입했다(표1 참조). 제조업 수출가치 기준에 따른 순위에서도 중국은 세계 1위이며 한국도 처음으로 상위 5위권으로 진입했다(표2 참조). 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아시아 성장에 제조업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제조업이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아시아 지역이 꾸준히 산업화되고 선진국의 제조업이 줄어들면서 아시아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오늘날 에이서(Acer), 레노보(Lenovo), 화웨이

(Huawei), 현대(Hyundai), 인포시스(Infosys), 삼성(Samsung), 타타(Tata) 등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표1 제조업 명목 순이익에 따른 국가 순위

순위	1980	1990	2000	2011
1	미국	미국	미국	중국
2	일본	일본	일본	미국
3	독일	독일	중국	일본
4	중국	이탈리아	독일	독일
5	프랑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6	이탈리아	영국	이탈리아	한국
7	영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8	브라질	러시아 연방	한국	러시아 연방
9	스페인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10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인도
11	캐나다	캐나다	브라질	영국
12	호주	한국	스페인	멕시코
13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14	인도	터키	터키	스페인
15	스위스	인도	러시아 연방	캐나다

주 : 중국의 1980년, 1990년, 2000년 ‘Min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데이터 활용. 러시아 연방 이전 소련은 순위에 미포함
 자료 : UN National Accountants Main Aggregate Database

표2 제조업 수출가치 기준에 따른 국가 순위

	1998	2000	2011
중국	7	5	1
독일	2	2	2
미국	1	1	3
일본	3	3	4
한국	12	10	5
프랑스	4	4	6
이탈리아	6	7	7
네덜란드	11	12	8
홍콩	9	9	9
벨기에	10	11	10
영국	5	6	11
싱가포르	14	14	12
캐나다	8	8	13
멕시코	13	13	14
스페인	15	15	15

주 : 1998년도 벨기에 순위는 벨기에-룩셈부르크의 데이터 활용
 자료 : UN Comtrade

이런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현 경제성장률을 가만할 때 2050년 경에 아시아는 유럽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아시아 경제권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0%에 가까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제흐름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고 팩토리 아시아 모델이 다음 세기에 알맞게 진화해야한다.

라. '팩토리 아시아'를 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

1.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주요 트렌드 변화

주요 트렌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 팩토리'의 주요 고객인 미국과 유럽의 수요는 둔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새로이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기술과 공정이 제조업 환경을 변화시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도 있다고 가정한다(표3 참조).

2.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대안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슈들과 이에 따른 영향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전략과 각 국가의 특성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는 교육, 훈련, 인프라 발전과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연계성 강화, 국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한다. 각 국가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팩토리 모델 내에 있는 국가의 경우 생산네트워크의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그 중 대규모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 자체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국가 브랜드 확보 및 교육 투자를 통한 인력 개발을 강조한다. 그리고 작은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신흥공업국의 경우 지식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투자가 새로운 신흥시장을 개척해야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소독층을 위해 생산 네트워크에서 현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기술 생산네트워크의 틈새시

표3 팩토리 아시아가 당면할 주요 트렌드와 이슈

트렌드	주요 이슈	영향	가능성
I. 세계경제변화와 아시아 소비시장의 성장 팩토리 아시아의 제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	1. 선진국의 성장 둔화세로 수요가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	높음	높음
	2. 팩토리 아시아 지역의 성장하는 중산층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 증가	높음	높음
	3. 아시아 제조업체가 세계적 경쟁력의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할 필요성	낮음	높음
	4. 약한 경제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선진 경제 보호주의 경향 야기	낮음	낮음
	5. 길고 복잡한 공급망으로 많은 자연 재해에 취약해지고 평판 위협	중간	중간
	6. 아시아와 선진국 사이의 임금 비용 차이 축소	중간	높음
II. 생산 비용 상승 등 기존 이점의 점진적 약화	7. 환율 변동 심화로 여러 국가에 걸친 생산네트워크 관리가 어려워짐	중간	높음
	8.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더욱 정교한 제품 생산 방해	높음	높음
	9. 일부 국가, 인구 변화에 의한 노동력 축소	높음	높음
	10.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	높음	높음
III.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 환경의 변화	11.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에 더 중요해지고 가치 점유율 상승	중간	높음
	12. 로봇 및 부가가치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생산의 시대 예고 가능	중간	높음

장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확장해야한다.

팩토리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가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술력 향상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어느 정도 규모의 국내시장이 있는 국가는 그 시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확보하고 제조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태평양 섬지역 같은 경우 생산네트워크에 참여 시 자국이 가지는 지리적 혹은 규모의 한계를 정확하게 식별한 후 참여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운송비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및 물류 개선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기준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ADB는 지역협력이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에 필수 조건이라 강조한다.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하는데 이런 선행적 과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성공과 진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투자의 자유와 시장개방의 이로움에 공감하고 있음

아시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대안 요약

1. 전략적 대안

- (1) 전체적으로 교육, 훈련,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연계성 강화
- (2) 팩토리 아시아에 이미 참여 중인 곳은 시장 증대와 가치 사슬에 우위 점유를 목표로 추진
- (3) 아직 팩토리 아시아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가 참여를 결정한다면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이룰 것이며, 이미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 가치 사슬에서 상승하는데 이룰 것
- (4) 지역 협력이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에 필수적

2. 정책적 대안

- (1) 아시아 시장으로 생산 대상 이동

- 아시아는 다양한 소득, 입맛, 문화적 특성에 알맞은 특화된 디자인과 맞춤형 생산품 생산 강조
- (2) 잠재적 성장의 이득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
 - 기존 노동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참여 장려
- (3)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가기
 - 과거에는 비용 효율이 중요했다면 미래에는 생산 장소가 수요지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아시아의 높은 잠재적 수요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4) 정책 결정자는 주변 아시아 개도국을 잠재적 시장으로 인식하는 마인드 필요
 - 민간 부문이 지금처럼 경제를 주도하겠지만, 정부의 역할도 강화 필요
 - 특히 주요 경제권은 상호간의 지역적 협력 강화 (일반적인 협력 외에도 벤처 기업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신흥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도모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 필요)
- (5) 국경내 장벽 제거
 - 원활한 무역거래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저해하는 국내의 장벽 제거(특히 동남아시아 경제권의 경우 이 부문의 경쟁력이 확보하지 않으면 생산기지가 남미나 아프리카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음)
- (6) 교육 부문의 투자
 -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고 기술지향적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기능적 교육과 일상적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향후 트렌드 변화를 가르쳐 졸업 후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
 - 민간 기업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재교육 지원
 - 정부의 지역협력을 통해 기술력이 원활한 이동을 촉진 가능(예: ASEAN 경제커뮤니티 2015)
- (7) 세계적 인프라 확보
 - 세계적인 인프라는 대규모 제조업체를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중국은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매우 잘하고 있음
 -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교통과 거래비용 등 규제 외 장벽에 신경(국경 절차 간소화, 로지스틱 서비스 등)
- (8) 제조업과 서비스의 결합 강화
 - 제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기능(로지스틱, 정보통신 등)이 많으므로 제조업과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요한 과제
 - 제조업과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 국내 수요를 생성하고 지역내 무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일부 개발된 서비스 부문을 지원하여 강화시키는 방안 고려 가능
 - 단, 한국의 경우 제조업보다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

으로 앞으로 지역협력이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결론

아시아는 2.6억만 인구의 고향이다. 글로벌 경제가 재조정 됨에 따라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는 투자 방향으로 대규모 금융 자산을 배분해야한다. ADB는 미래에도 제조업이 여전히 아시아의 주요 성장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단순한 경제 성장전략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배려한 성장, 자국의 내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자발적 경제성장, 그리고 원활한 부의 분배를 위한 공평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투자, 중소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참여 증대, 인프라 건설, 녹색 기술 지향적 제조업,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 등 매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